

지난주 예배 출석 및 모임 통계									
Statistics and Worship Attendance Last Week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1부	스프링	79	823	970	105	73	111	147
	2부	스트림	136						
	3부	리버	176						
	4부	오션	168						
	Adults	라이프하우스	107						
교회 학교 Sunday School	유치부	3층 예배실	20	105	73	111	147	105	73
	유년부	5층 예배실	24						
	소년부	7층 예배실	30						
	청년부	5층 예배실	48						
	성도학교	평동캠퍼스	16						
주일 오후 Sunday afternoon service	유치부	3층 예배실	9	105	73	111	147	105	73
수요일 예배 Wednesday night prayer	유년부	5층 예배실	24						
토요일 기도회 Saturday night prayer	소년부	7층 예배실	30						
일요일 예배 Sunday morning service	청년부	5층 예배실	48						
평일 예배 Weekday morning service	성도학교	평동캠퍼스	16						

지난주 헌금 현황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신앙	이름	주 소	선교회	인도자	등록일	신앙	이름	주 소	선교회
7	유지선	상임	50	김태희	2월 9일	18	이은	남가좌동	4004선교회
8	고희선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19	이은	남가좌동	4004선교회
9	장교진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0	조은	상남동	4004선교회
10	이은진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1	이은	상남동	4004선교회
11	김영선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2	송지	송도동	5669선교회
12	김은선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3	이은	상남동	4004선교회
13	김은선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4	이은	상남동	4004선교회
14	이은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5	김은	상남동	4004선교회
15	김은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6	이은	상남동	4004선교회
16	김은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7	김은	상남동	4004선교회
17	김은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8	이은	상남동	4004선교회

2026년도 등록 새가족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신앙	이름	주 소	선교회	인도자	등록일	신앙	이름	주 소	선교회
7	유지선	상임	50	김태희	2월 9일	18	이은	남가좌동	4004선교회
8	고희선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19	이은	남가좌동	4004선교회
9	장교진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0	조은	상남동	4004선교회
10	이은진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1	이은	상남동	4004선교회
11	김영선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2	송지	송도동	5669선교회
12	김은선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3	이은	상남동	4004선교회
13	김은선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4	이은	상남동	4004선교회
14	이은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5	김은	상남동	4004선교회
15	김은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6	이은	상남동	4004선교회
16	김은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7	김은	상남동	4004선교회
17	김은	상임	50	김태희	3월 1일	28	이은	상남동	4004선교회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강림후 11주 (2026년 8월 9일 (제 73권 32호))



상암동교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행 3:1)

거룩한 영성, 따뜻한 사랑, 인격과 생명이 화해되는 교회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상암동교회 소년부, 청소년부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사진첩. 야외 활동, 성경 공부, 팀워크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암동 뉴스 Announcements

"상암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교회학교위원회]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종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느님의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련, 성경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SPRING 청년] 2026 여름 수련회

■ 일시: 8월 13일(월)~15일(토)
■ 장소: 서울여과대학교
■ 주제: '승리의 주 Never Lost' (2026 캠프코리아 청년 Fire 캠프)

3. 선교회 월례회

■ 일시: 오늘 3부 예배 후
■ 장소: 각 선교회별 지정된 장소

4. 위헌청고역자선서회의

■ 일시: 8월 9일 3시20분 ■ 장소: 6층 채플룸
■ 주제: 정선수영관, 345층 복합

5. 은회,사우로 부부수련회

■ 일시: 8월16~18일
■ 장소: 정선수영관, 345층 복합

6. 주일 예배시 주차 금지 구역 안내

주일 낮 교회주변 (황남보도로부터 10m(내) 주차로 인해 과대료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역적 여름 휴가 일정

■ 8월 10일(월)~14일(금): 김용태, 유익선 목사

8. 교수서장

■ 8월 10일(월)~14일(금): 김용태, 유익선 목사

9. 담임목사 동행

■ 8월 13일(목): 학교법인 사무국

주일 큰 비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목상예배 (오전7:30)	2부 전통예배 (오전9:00)	3부 부흥예배 (오전10:30)
1st Service (Meditation)	2nd Service (Traditional)	3rd Service (Family)
인도 & 말씀 · 유익선 목사	인도 · 유익선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인도 · 천하나, 김용태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 송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찬 송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희중환찬양 Offering Song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말 씬 Message 찬 송 축 도 Benediction 배 회 송 Closing Hymn	영 상 광 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 송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찬 송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희중환찬양 Offering Song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말 씬 Message 찬 송 축 도 Benediction 배 회 송 Closing Hymn	영 상 광 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 송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찬 송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희중환찬양 Offering Song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말 씬 Message 찬 송 축 도 Benediction 배 회 송 Closing Hymn

※ 표가 있는 순서는 품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녹음비 예배 (오전 2:30) Sunday afternoon worship

· 기 도 이기원 권사 (다들주: 이원택 권사)
· 말 씬 그라스도의 인내에 물려야 하심을 권하노라(골 3:1-5)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수요일 예배 (저녁 7:30) Wednesday night worship

· 성 경 요한복음 5장 39-47
· 말 씬 성도의 자기 신성 점검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에 배 봉 헌 담 당 (Usher team)

구분	금 주	다음 주	봉 헌 위 원
1부	고 역 자	고 역 자	고 역 자
2부	이재명 장로	최인철 장로	송두성 안수자 윤희숙 이기희 최금남
3부	최인철 장로	차주성 장로	김경자 김은혜 신정화 신화숙 최광숙 이경희

온라인 헌금계좌 은행(새마을금고) 예금주(상암동교회)
 입입헌금 0436-0900-0334-1 일 반 헌 금 0436-0900-1381-1

주일 큰 비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목상예배 (오전7:30)	2부 전통예배 (오전9:00)	3부 부흥예배 (오전10:30)
1st Service (Meditation)	2nd Service (Traditional)	3rd Service (Family)
인도 & 말씀 · 유익선 목사	인도 · 유익선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인도 · 천하나, 김용태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 송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찬 송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희중환찬양 Offering Song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말 씬 Message 찬 송 축 도 Benediction 배 회 송 Closing Hymn	영 상 광 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 송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찬 송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희중환찬양 Offering Song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말 씬 Message 찬 송 축 도 Benediction 배 회 송 Closing Hymn	영 상 광 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 송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찬 송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희중환찬양 Offering Song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말 씬 Message 찬 송 축 도 Benediction 배 회 송 Closing Hymn

※ 표가 있는 순서는 품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녹음비 예배 (오전 2:30) Sunday afternoon worship

· 기 도 이기원 권사 (다들주: 이원택 권사)
· 말 씬 그라스도의 인내에 물려야 하심을 권하노라(골 3:1-5)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수요일 예배 (저녁 7:30) Wednesday night worship

· 성 경 요한복음 5장 39-47
· 말 씬 성도의 자기 신성 점검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에 배 봉 헌 담 당 (Usher team)

구분	금 주	다음 주	봉 헌 위 원
1부	고 역 자	고 역 자	고 역 자
2부	이재명 장로	최인철 장로	송두성 안수자 윤희숙 이기희 최금남
3부	최인철 장로	차주성 장로	김경자 김은혜 신정화 신화숙 최광숙 이경희

생명의 말씀 신민규 목사 Message Dr. Shin Min-Gyoo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히브리서 12:1-3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유대교 공동체의 지극한 핍박과 로마 제국의 광적인 율체적 고난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를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엄청난 고난의 안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11장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한 뒤, 이어서 12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궁극적인 비결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길요?

첫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 (히 12:2a).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아픈 형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로마 제국이 자국민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던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치욕의 십자가'를 힘아써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에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 습니다.

둘째,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승리의 예수'입니다. "...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b). 이 위대한 선언은 사면 1101의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리니 나는 네 오른손에 앉아 있노라 하였노라"라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후 마침내 영광스럽게 승리하실 것을 오직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실패나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는 승리자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5 "다시 밤이 없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치시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라"의 약속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왕 노릇 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일생이 곧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셋째, 믿음의 추가 되시는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가리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의 열어가 원인을 보면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주요" 번역된 <아르케톤> pnx v는 시작자,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로 번역된 <텔레티오스> teleiotes)은 완성자, 성취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내 지니나 결심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만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우리 믿음의 시작점(원점)이라면, 창자 영광의 심판 자리로 다시 오실 예수는 우리 믿음의 결말(영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추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밤이 세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피라미한 마리 잡지 못해 탈탈케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세도록 수고하였되도 잡은 것이 없었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순종합니다. 그들이 철어질 정도도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직후, 베드로는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여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 달려 주지않아 예수의 무릎 아래 영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순간,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는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훌륭한 선생님에서, 내 영혼과 인생을 온전케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Lord)'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침내 믿음의 근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민규 담임목사의 1분 컬럼 (Senior Pastor's 1 Minute Column)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남한 하나님을 시는 것처럼 초초와 요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요트는 5층 규모에 10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었고, 100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냉창고와 함께 이발관, 미용실,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영화관 등 온갖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배에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참된 기쁨은 물질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알프레드 델보트는 "행은 중요하다. 자유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과 방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물질이 신한 도구가 되고,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며, 자신이 신을 이루고, 권력이 생김의 수단이 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밤이 세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피라미한 마리 잡지 못해 탈탈케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세도록 수고하였되도 잡은 것이 없었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순종합니다. 그들이 철어질 정도도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직후, 베드로는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여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 달려 주지않아 예수의 무릎 아래 영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순간,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는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훌륭한 선생님에서, 내 영혼과 인생을 온전케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Lord)'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침내 믿음의 근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히브리서 12:1-3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유대교 공동체의 지극한 핍박과 로마 제국의 광적인 율체적 고난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를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엄청난 고난의 안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11장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한 뒤, 이어서 12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궁극적인 비결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길요?

첫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 (히 12:2a).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아픈 형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로마 제국이 자국민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던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치욕의 십자가'를 힘아써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에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 습니다.

둘째,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승리의 예수'입니다. "...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b). 이 위대한 선언은 사면 1101의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리니 나는 네 오른손에 앉아 있노라 하였노라"라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후 마침내 영광스럽게 승리하실 것을 오직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실패나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는 승리자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5 "다시 밤이 없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치시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라"의 약속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왕 노릇 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일생이 곧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셋째, 믿음의 추가 되시는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가리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의 열어가 원인을 보면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주요" 번역된 <아르케톤> pnx v는 시작자,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로 번역된 <텔레티오스> teleiotes)은 완성자, 성취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내 지니나 결심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만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우리 믿음의 시작점(원점)이라면, 창자 영광의 심판 자리로 다시 오실 예수는 우리 믿음의 결말(영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추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밤이 세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피라미한 마리 잡지 못해 탈탈케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세도록 수고하였되도 잡은 것이 없었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순종합니다. 그들이 철어질 정도도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직후, 베드로는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여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 달려 주지않아 예수의 무릎 아래 영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순간,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는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훌륭한 선생님에서, 내 영혼과 인생을 온전케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Lord)'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침내 믿음의 근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1-3 (NIV)

Today's passage, the book of Hebrews, was written for the early Jewish Christians who were suffering under severe persecution from the Jewish community and terrible physical hardships from the Roman Empire. For the sole reason of believing in Jesus, they had their property seized, were thrown into prison, and faced the threat of losing their lives. The writer of Hebrews presents the only way to overcome this thick fog of suffering. After introducing in chapter 11 the many "heroes of faith" who overcame trials through faith, he then urges in chapter 12 the ultimate secret for victory in our faith journey: "Fix your eyes on Jesus." So then, what kind of Jesus must we, who are in the midst of suffering, look to without wavering?

First, Jesus is the One who endured the cross,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Hebrews 12:2a). Dear saints, the cross that Jesus bore was not merely a painful punishment. It was the most shameful and agonizing form of execution in human history—a dreadful torture device that the Roman Empire never imposed on its own citizens. Yet Jesus did not drag Himself to that "cross of shame" out of weakness or compulsion. As the Son of God, He could have avoided that suffering at any time. But because only through His death could we live, He endured it to the very end, thereby accomplishing our salvation.

Second, Jesus is the victorious One who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rews 12:2b). This great declaration quotes David's psalm: "The LORD says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Psalm 110:1). This was a prophecy long ago that after Christ endured the shame of the cross, He would finally triumph in glory. Jesus' death on the cross was by no means a failure or the end of everything. On the third day He shattered the power of death, rose again,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glorious throne that rules over all creation. "Throne" is the seat of the Victor's glory. And do you know what amazing blessing this entails? Just as Revelation 22:5 promises, "There will be no more night. They will not need the light of a lamp or the light of the sun, for the Lord God will give them light. And they will reign for ever and ever." (Revelation 22:5)—we too, if we keep our faith to the end, will sit with Him on that throne of glory and reign forever and ever. The glorious life of Jesus is precisely the future picture of us, the saints.

Third, Jesus i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Today's passage calls Jesus, who bore the cros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The original Greek gives this a deeper meaning. The word translated "pioneer" (arhégion) means beginner, source, or founder. And the word translated "perfecter" (teleiotes) means commander, finisher. That is, our faith does not originate from our own will or resolution, but solely from Jesus, and it is perfectly completed only in His grace. If Jesus, who came to earth and bore the cross, is the starting point (the Alpha) of our faith, then Jesus who will return as the glorious Judge, is the end (the Omega) of our faith. Therefore, Jesus Christ alone is the true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lives.

Remember Peter's great confession of faith in Luke chapter 5? After fishing all night and catching nothing, Peter was washing his nets in despair when Jesus came to him and commanded,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Peter laid aside his own experience and knowledge as a fisherman and obeyed, saying,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Luke 5:5). Immediately after catching such a hu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tear! Peter did not rejoice over the boat full of fish. Instead, he fell at Jesus' knees and confesse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Luke 5:8). In that amazing moment, in Peter's life, Jesus was no longer merely a good teacher who performed miracles. He became "my Lord" who reigns completely over his soul and life. At last, Peter had met the very source of faith.

わたしたちが見つめなければならないイエス

ヘブライ 12:1-3

今日の本文であるヘブライ人への手紙は、ユダヤ教の共同体からの残酷な迫害とローマ帝国の恐ろしい肉体的苦難に苦しんでいた初代教会のユダヤ人クリスチャンたちのために記録された言葉です。彼らはイエス様を信じた理由だけで財産を奪われ、獄につながれ、命を失う危機に陥っていました。ヘブライ人への手紙の記者は、この大変な苦難の間に打ち勝つことができる唯一の方法を提示しています。11章で信仰の英雄に打ち勝った数多くの「信仰の先駆者」を紹介した後、続く12章ではわたしたちの信仰の旅路を勝利するための究極的な秘訣として、「イエスを見つめなさい」と切実に勧めています。これは苦難の中にあるわたしたちが、揺るぐことなく見つめなければならないイエスが具体的にどのような方なのであるのかです。

第一に、「十字架を耐え忍んだイエス」なのです。「信仰の創始者また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見つめながら。このイエスは、御自身の前にある十字架を捨て、恥をもとむわが十字架の死を耐え忍び。」(ヘ12:2a)。聖徒の皆さん、イエス様が背負われた十字架は単純に痛い刑罰ではありません。人類歴史上で人が負うことができた最も地獄である苦痛である。ローマ帝国が自国民に下すことのないであろう恐ろしい処刑台でした。しかしイエスは「[御前の十字架] にながなくて無理やり連れ去られた訳ではありません。イエスは神様の息子だったのでいくらかでもその苦難を避けることができたが、御自身が死ななければわたしたちが生き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最後まで耐えられたのがわたしたちの救いが成し遂げられたのです。

第二に、「[玉座の右の座られた勝利のイエス]」なのです。「[恥をもうとわが十字架の死を耐え忍び、神の玉座の右にお座りになったのです]」(